

#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 자기역량감을 중심으로

## Father Attachment/Mother Attachment and Ego-Resiliency as Mediators of Self-Competence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 수 조 희 금\*\*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 수 민 하 영\*\*\*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

Professor : Cho, Hee-Keum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Min, Ha-Yeou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among father attachment/mother attachment, self-competence and ego-resiliency in school aged children. Path analysis was utilized to examine relations among variables. The subjects were 701 school children attended in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by the use of SPSS 19.0. and AMOS 19.0

Results indicate that (1) Both of 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have not direct effect on ego-resiliency but self-competence has direct effect on ego-resiliency. (2) 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influence ego-resiliency in paths through self-competence. And father attachment influence more on self-competence and ego-resiliency than mother attachment.

---

▲주요어(Key Words) : 부/모애착(father attachment/mother attachment), 자기역량감(self-competence),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 I. 문제제기

학교환경이라는 공식적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학령기 아동은 학업문제, 친구문제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 사회적 부적응 및 신체적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고(Grant et al., 2003) 있다. 스트레스가 갖는 부정적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 유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스트레스 유무보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적응이 달라진다는 점(Carson et al., 1992)을 고려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 대응 태도라 할 수 있다.

---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주 저 자 : 조희금(E-mail : hkcho@daegu.ac.kr)

\*\*\* 교신저자 : 민하영(E-mail : hymin@cu.ac.kr)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매우 유용한 개인 내적 자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Rutter, 1993; Garmezy, 1996; Luther, Cicchetti & Becker, 2000; Norman, 2000; Mastern, 2001).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 환경에서 환경적 요구에 융통적으로 적응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Block & Kremen, 1996)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탄력성(resilience)'은 용수철이 지나는 복원력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압축된 용수철이 복원되는 것처럼 인간도 역경이나 어려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다시 복원하려는 내적 능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이 곧 자아탄력성인 것이다(Garmezy, 1993).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여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Block & Block, 1980; Garmezy, 1993; Block & Kremen, 1996; Boyce Rodgers & Rose, 2002)하려는 자아탄력성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제적 빈곤이나 부모 이혼 또는 시설 보호아동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이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사회적으로 낙오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 적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아탄력성이 내외적 스트레스 요인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능력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아탄력성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학교환경 속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강화는 스트레스로부터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은 가정 내 부모-자녀간 관계에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roufe, Carlson, & Schulman, 1993; Lee & Park, 2002; Kwan, 2006; Ahn, Oh, & Kim, 2011; Na & Ahn, 2011). 부모와의 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이 환경에 대한 안전감(safety)과 신뢰감(trust)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애착으로 인한 안전감과 신뢰감은 직면하는 환경이 비록 낯설고 어렵다하더라도 융통성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게 만드는 정서적 자원이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양질의 애착을 발달시킨 경우 보다 높은 자아탄력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Furman & Buhrmester, 1992)하는데 반해 자아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 특히 후기 학령기 아동(Harter, 1985)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부모애착에 의한 직접적 영향보다 자기 내적 요인인 자기역량감에 의해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빈곤, 부모 이혼, 사망 등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부모 애착이나 관계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한 영향 가능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반해 자기역량감은 10세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발달하면서 보다 강력한 내적 자기 자원으로 작동한다. 이는 자기역량감이 자아탄력성에 좀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역량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적절성에 대한 주관적 지각, 인식 및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Harter, 1985). 따라서 자기역량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절성 등 내적 자기 자원에 대한 믿음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자기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간에 관계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지지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내적 자기 자원인 자기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사이에 유관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Gordon Rouse, Ingersoll, & Orr, 1998; Buckner, Mezzacappa, & Beard-slee, 2003; Davey, Eaker, & Walters, 2003)되고 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Rosenberg, 1965)의 경우 부정적 사건 경험 시,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도록 하거나(Brown & Dutton, 1995),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이 덜 나타나도록 하는 내적 요인(Han, Jang, & Ahn, 2004)으로 기능하면서 자아탄력성에 .50 이상의 유의한 영향(Buckner et al., 2003)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역량감과 자아탄력성간의 유의한 관계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역량감은 모두 자기가치감을 포함하는 자아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아존중감이 전반적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라면 자기역량감은 전반적 자기가치 외에 구체적 영역에서의 자기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Harter, 1990). 자아존중감 또는 자기역량감 등 자아 개념이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정보가 외부의 단서를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은 낮은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부정적 단서나 정보를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한다(Bigler, Neimeyer, & Brown, 2001). 이러한 평가 때문에 자아 개념이 높은 사람은 보다 융통성있는 문제 해결 태도 즉 높은 자아탄력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 개념으로서 자아탄력성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는 자기역량감은 부모애착 등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에 대한 지각이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됨(Cooley, 1902; Harter, 1985, 1990; Nurra, & Pansu, 2009)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형성되는 상호작용의 질은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이다. Collins and Read(1990)는 보다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보다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지적하였다. 실질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있다고 평가할만큼 자신에 대해 긍정적(Ainsworth et al., 1978; Paterson, Pryor, & Field, 1995; Jang, 2002; Cho & Lim, 2011)이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 신뢰가 적을 뿐 아니라 자신을 사랑받거나 지지받기에 부족하다고 평가(Mikula & Leitner, 1998)할만큼 낮은 자아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은 타인에 대한 표상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et al., 1978; Harter, 2006, Thompson, 2006). 따라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동은 긍정적 자기 표상을 기반으로 높은 자기역량감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자기역량감이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다는 사실은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 속에 자기역량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은 자기역량감에 의해 중재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ang & Baek, 2006; Song & Lee, 2011)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가족 응집이나 적응 등 가족관계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영향이 공감이나 내의 통제소재 또는 자아존중감 등 개인 내적 요인에 의해 중재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중재가 완전매개(Kang & Baek, 2006)인지 부분매개(Song & Lee, 2011)인지에 관한 결과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변인의 경우, 개인 내적 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자아탄력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가정환경변인인 부모애착과 개인내적변인인 자기역량감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은 각각 자아탄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 부모애착은 자기역량감을 통해 자아탄력성에 간접적 영향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을 기초로 변인간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모애착이라도 부와 모의 애착이 아동의 자기역량감이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역량감이나 자아탄력성 등 아동의 내적 자기 자원은 부와 모 모두의 애착을 통해 형성할 수 있지만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부 또는 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의 따뜻함과 수용성은 12세에서 18세 자녀의 자아 개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또래 관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ković, & Meeus, 1996). 이와 같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Doyle et al., 2000; H. Choi, 2005; Y. Choi, 2005)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 영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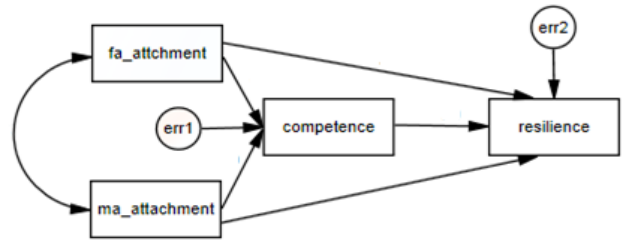


Figure 1. Study Model: Partial Mediation Model

따라 아버지의 영향이 어머니의 영향보다 높다는 보고도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공격성(Choi, 2005)이나 또래와의 다툼 등에서는 모애착보다 부애착이 보다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설명(Melissa & Anna-Beth, 1999)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와 모의 영향이 아동의 발달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Easterbrooks & Goldberg, 1990; Suess, Grossmann, & Sroufe, 1992)에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 또는 모 애착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부모애착 연구는 부와 모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와 모애착 양상이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애착과 자기역량감 그리고 자아탄력성간 관계를 부분매개모형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 애착의 영향은 자기역량감에 의해 부분매개 되는가?

[1-1]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 애착과 자기역량감의 직접적 영향은 유의한가?

[1-2]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자기역량감을 통한 부/모애착의 간접적 영향은 유의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관련 및 복지관련 종사자, 상담 분야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나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학업이나 친구관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chool Aged Children

(n=701)

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Grade	4th	134(19.1)	Mother job	non-job	263(37.5)
	5th	244(34.8)		job	422(60.2)
	6th	323(46.1)		missing	16( 2.3)
Sex	boy	356(52.1)	Income (million won)	300 ≤	379(54.1)
	girl	336(47.9)		300 >	322(45.9)
Mother age	30s	401(57.2)	father age	30s	195(27.8)
	40s	276(39.2)		40s	463(66.0)
	50s	13( 1.9)		50s	34( 4.9)
	missing	12( 1.7)		missing	9( 1.3)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	383(54.6)	father education	high school ≤	359(51.2)
	2 year college	64( 9.1)		2 year college	72(10.3)
	university ≥	216(30.8)		university ≥	235(33.5)
	missing	38( 5.4)		missing	35( 5.0)

로부터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가 갖는 부정적 적응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Rutter, 1985; Garnezy, 1993)은 스트레스의 건강한 대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개발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부/모 애착과 자기역량감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70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 134명(19.1%), 5학년 244명(34.8%), 6학년 323명(46.1%)이었으며 남자는 356명(52.1%), 여자는 336명(47.9%)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는 40대가 463명(66.0%), 어머니는 30대가 401명(57.2%)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졸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가정이 379명(54.1%)을 차지했다.

## 2. 연구도구

### 1) 부/모애착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Lee & Park, 2004; Gullone & Robinson, 2005; Ahn et al., 2011)에서 학령기 아동의 애착 측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Armsden and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IPPA-R)

을 활용하였다. IPPA-R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9~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Gullone & Robinson, 2005). 이 연구에서는 IPPA-R 중 부/모애착만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Ok(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어머니)는 좋은 아버지(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기분 나쁠 때 잘 알아차린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별 관심이 없다.' 등의 25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부와 모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아동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확인받은 이 척도의 응답 가능 범위는 부와 모 각각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부애착과 모애착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각 .92로 나타났다.

### 2) 자기역량감

학령기 아동의 자기역량감은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 지각 검사(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 SPPC)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Kim(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한다.'와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 '나는 어떤 운동이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나는 운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외모에 만족한다.'와 '나는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등과 같이 동일 내

용을 긍정적 표현 문장과 부정적 표현 문장으로 각각 기술되어 있다. 응답자는 긍정적 표현 문장과 부정적 표현 문장 중 하나의 문장만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문장에서 ‘약간 그렇다’와 ‘정말 똑같다’ 중 하나에 응답하면 된다. 부정적 표현 문장 선택 시 ‘정말 똑같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긍정적 표현 문장 선택 시 ‘약간 그렇다’ 3점, ‘정말 똑같다’ 4점을 부여한다. 4점 Likert로 측정된 이 척도는 아동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았다. 응답 가능 범위는 36점에서 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역량감을 보다 높이 평가하고있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다.

3) 자아탄력성 척도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지각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 and Kremen(1996)이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적 안정성을 확인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 E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국내의 연구(Marcel, 1992; Huey & Weisz, 1997; Yoo & Shim, 2001)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4, 5, 6학년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괜찮아진다’, ‘나는 친구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등의 14문항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 척도 ER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아동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은 이 척도의 응답 가능 범위는 14점에서 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4주 후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총 900부가 배부되었으나, 이 중 양친이 있는 자료만을 선정하고 이 중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독립과 종속변인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701부만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의 인과적 경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9.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MIN, GFI, RMSEA, TLI, CFI, NFI값을 살펴보았다. 한편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 자기역량감 및 자아탄력성간 상관관계수, 평균(표준편차)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부/모애착, 자기역량감, 자아탄력성간 인과적 경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 모델의

Table 2. Bivariate Correla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self-competence	ego-resiliency
father attachment	1.00			
mother attachment	.84***	1.00		
self-competence	.46***	.44***	1.00	
ego-resiliency	.35***	.35***	.64***	1.00
n	701	701	701	701
mean	3.90	3.97	2.82	2.79
SD	.64	.63	.43	.45
skewness	-.61	-.74	-.16	.04
kurtosis	.11	.58	.46	1.12

\*\*\* $p < .001$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등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관찰변인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별 왜도는 3미만 값( $SSI < 3.0$ )이 나왔으며, 첨도는 10미만 값( $SKI < 10.0$ )이 나왔기 때문이다(West, Finch, & Curran, 1995; Kline, 2005; Moon, 2009). 관찰변인의 첨도 및 왜도가 정규분포성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집단 분포의 정규분포성을 요하는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이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Moon, 2009).

2.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 자기역량감 및 자아탄력성간 인과 관계 분석

모형분석에서는 자기역량감의 부분매개효과를 상정한 연구모형과 자기역량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상정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분매개효과에 기초한 연구모형의 경우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 내의 모든 관찰변인들이 직접적인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일방향 화살표나 또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쌍방향 화살표로 모두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오차 항간에도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Moon, 2009). 이는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부분매개모델이 정보의 수와 자유 모수치의 수가 같은 포화모델

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화모델인 부분매개효과의 모델적합성을 수정모델인 완전매개모델과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수정모형으로 제시된 완전매개모델이 간명모델로 기능하면서 부분매개모델인 포화모델과의 적합성을 판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델을 포화모델로 하여 간명모델인 완전매개모델의 모델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간명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 $GFI > .90$ ,  $NFI > .90$ ,  $CFI > .90$ ,  $.02 < RMSEA < .08$ )가 모델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애착과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델 즉 완전매개모델이, 모델 부합도지수의 통계적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완전매개모델을 중심으로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결과는 <Table 4>에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모델 내 추정된 모수치의 경로계수를 <Figure 2>를 통해 나타냈다. 추정된 모수치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애착과 모애착은 자기역량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 부애착( $\beta = .30$ ,  $p < .001$ )이 모애착( $\beta = .19$ ,  $p < .001$ )보다 자기역량감에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역량감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다중상관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Figure 2>에서 살펴보면 부/모애착에 의해 자기역량감이 설명되는 부분이 2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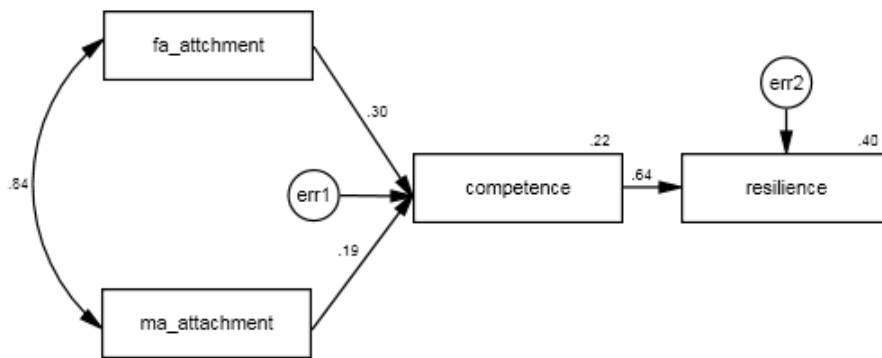


Figure 2.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Reported

Table 3. Fit Indices for Structural Model

model	$\chi^2$ (CMIN)	df	p	GFI	RMSEA	TLI	NFI	CFI
full-mediation model	5.88	2	.053	.996	.05	.992	.996	.997
cut-off criteria				> .90	.02 < RMSEA < .08	> .90	> .90	> .90

Note GFI = Goodness-of-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Lewis Index, NFI = Normal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Table 4.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a Path Model

Path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father attachment → self-competence	.29	.06	4.93***	.30
mother attachment → self-competence	.19	.06	3.09**	.19
self-competence → ego-resiliency	.26	.01	21.81***	.64

\*\* $p < .01$ , \*\*\*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Effect Decomposition Among Path Coefficient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father attachment → self-competence	.30***	.30***	-
mother attachment → self-competence	.19**	.19**	-
self-competence → ego-resiliency	.64***	.64***	-
father attachment → ego-resiliency	.19***	-	.19***
mother attachment → ego-resiliency	.12***	-	.12***

\*\* $p < .01$ , \*\*\* $p < .001$

한편 자기역량감( $\beta = .64, p < .001$ )은 자아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부/모애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 자기역량감의 다중상관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Figure 2>에서 살펴보면 .40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3개의 변인에 의해 40% 설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완전매개모형을 기반으로 부애착, 모애착, 자기역량감, 자아탄력성간의 인과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토대로 변수들간의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자기역량감( $\beta = .64, p < .001$ )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을 뿐 부애착( $\beta = .19, p < .01$ ), 모애착( $\beta = .12, p < .001$ ) 모두는 자기역량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의 전체효과는 자기역량감( $\beta = .64, p < .001$ ), 부애착( $\beta = .19, p < .01$ ), 모애착( $\beta = .12, p < .001$ ) 순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예 재학 중인 70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의 관계를 부분매개모형의 인과적 경로모형을 기초로 살펴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지만, 자기역량감에 의해서는 직접 영향을 받는다. 자기역량감이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 미친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존중감과 자아탄력성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Gordon et al., 1998; Buckner et al., 2003)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rown & Dutton, 1995; Han et al, 2004)와 유사한 것이다. 자기역량감이 높은 아동은 자기 스스로를 능력있고 가치롭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내·외적으로 많다고 평가될 경우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이 낮아지는 등(McCubbin & Patterson, 1983) 자아탄력적 모습을 나타내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자기역량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내적 자원으로 작동하면서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심리적 특성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역량감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과 같은 가족 관계변인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나 공감, 내외 통제성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ang & Baek, 2006)와 유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roufe et al., 1993; Lee & Park, 2002; Kwan, 2006; Ahn et al., 2011; Na & Ahn,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애착 모두 자아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이혼, 빈곤 등 환경적 조건에 의해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나타나는 능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부/모애착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환경적 요인임을 고려해 보면, 자아탄력성이 환경적 요인인 부/모애착에 의해 직접 영향받기보다 부/모애착에 의해 형성된 개인 내적 요인 즉 자기역량감에 의해 간접 영향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런 결과라 보여진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애착> 자기역량감> 자아탄력성 간 완전매개의 타당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완전매개의 타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또는 사회적 지지 등 환경적 요인 외에 통제 소재, 자기 효능감 등 개인 내적 요인들과 자아탄력성 간 관계 연구가 계속적으로 누적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간 관계가 자기역량감을 통해 매개되는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 개발에 부/모애착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역량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은 자기역량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이 보다 더 높은 자기역량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Ainsworth et al., 1978; Paterson et al., 1995; Mikula & Leitner, 1998; Jang, 2002; Cho & Kim, 2011)를 지지하는 것이다. 양질의 부모애착이 보다 높은 자기역량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태도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롭고 사랑받을만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해서 우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안정된 부모자녀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의 자기역량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부애착은 모애착보다 자아탄력성이나 자기역량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와 모애착의 영향력은 아동의 발달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Easterbrooks & Goldberg, 1990; Suess et al, 1992)를 지지하는 것이며, 공격성과 또래와의 다툼에서는 모애착보다 부애착이 보다 큰 설명력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Melissa & Anna-Beth, 1999; Choi, 2005)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Parsons and Bales(1955)의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할 경우, 정서적이고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자연

스럽고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구적이며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구적이며 수단적 역할 담당자인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친밀감이 제공될 경우 아동은 자신을 더욱 더 가치있고 사랑받을만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정서적이며 표현적 역할자로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정서적 친밀감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대구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수집된 자료에 국한된 것일 뿐만 아니라 남녀 아동의 성별 효과를 통제하지 않고 제시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남아와 여아는 모두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반해 여아는 고학년이 될수록 아버지와 거리감을 둔다는 연구결과(Paterson et al., 1994) 및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영향력이 남아 여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Richards et al., 1991)를 고려해 보면 자기역량감이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상대적 영향력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 그리고 자아탄력성 간 관계 규명 시 자료 수집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뿐 아니라 남녀 아동의 성별 효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 연구의 일반화 과정을 위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부 또는 모와의 애착이 건강 가정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현 사회에서, 취업모와 전업모를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 자기역량감과 자아탄력성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전업모의 학령기 아동에 비해 적절한 돌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모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자기 보호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후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전업모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의 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의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한다.

## REFERENCE

- Ahn J. Y. Oh, M. K. & Kim, J. S.(2011). The pathways from attachment to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peer suppor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6), 63-79.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lationships to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96-415.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Collins W. A.(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pp. 39-101). Vol. 13.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oyce Rodgers, K. & Rose, H. A.(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1024-1037.
- Brown, J. D., & Dutton, K. A.(1995). The thrill of victory, the complexity of defeat: Self-esteem and people's emotional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712-722.
- Buckner, J. C., Mezzacappa, E., & Beardslee, W. R.(2003). Characteristics of resilient youths living in poverty: The role of self-regulatory process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139-162.
- Carson, K., Swanson, D., Cooney, M., Gillum, B., & Cunningham, D.(1992). Stress and coping as predictors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Child Study Journal*, 22, 273-301.
- Cho, H. J. & Kim, J. M.(201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representation and others repres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social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 201-222.
- Choi, H. R.(2005). Parental attachment, automatic thoughts, gender role identity as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agg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3), 599-616.
- Choi, Y. J.(2005). The influence of internalization problem and attachment to parent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2), 15-25.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oley, C. H.(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1964 Ed). N.Y.: Schocken Book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eković, M. & Meeus, W.(1996).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2), 163-176.
- Doyle, A. B., Markiewicz, D., Brendgen, M., Lieberman, M., & Voss, K.(2000).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style and marital quality as predictors of child attachment security and self-concept. *Merrill-Palmer Quarterly*, 46, 514-539.
-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1990). Security of toddler-parent attachment. Relation to children's sociopersonality functioning during kindergarte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 221-24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urman, W., & Buhr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Gamble, W. C.(1994). Perceptions of controllability and other stressor event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coping among you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1), 65-84.
- Garnezy, N.(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y despite risk. *Psychiatry*, 56(1), 127-136.
- Gordon Rouse, K. A., Ingersoll, G. M., & Orr, D. P.(1998). Longitudinal health endangering behavior risk among resilient and nonresilient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3, 297-302.

- Grant, K. E., Compas, B. E., Stuhlmacher, A., Thurm, A. E., McMahon, S., & Halpert, J.(2003). Stressors and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oving from markers to mechanisms of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29, 447-466.
- Grant, K., O'Koon, J., Davis, T., Roache, N., Poindexter, L., Armstrong, M., Minden, J., & McIntosh, J.(2000).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low-income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exposed to stres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388-418.
- Han, G. H., Jang, H. S., & Ahn, K. S.(2004). The role of adolescents self-esteem in stress experiences, coping against them, and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385-402.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M. La Greca(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Obtaining self-reports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pp. 292-325). Boston, MA: Allyn and Bacon.
- Harter, S.(2006). The self. In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6th ed., pp. 505-570). Hoboken, NJ: Wiley.
- Huey, S. J. & Weisz, J. R.(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04-15.
- Jang, H. S.(2002). Attachments to par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5(1), 101-121.
- Kang, S. K. & Baek, W. H.(2006).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resil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8(2), 49-68.
- Kim, S. H.(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other differences of perceived competence rating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3), 29-57.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Y.: Guilford.
- Kwon, H. J.(2006). Ego resiliency in school-aged children correlates with interpersonal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3(4), 17-32.
- Lee, E. M. & Park, I. J.(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ren's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7(1), 3-24.
- Lee, K. S. & Park, J. A.(2009). Social competence to sex and attachment security in late school-age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9(1), 63-81.
- Marcel, A. G. van Aken(1992). The development of general competence and domain-specific competenci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4), 267-282.
- McCubbin, H. I., & Patterson, J.(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H. McCubbin, M. Sussman. & J. Patterson(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pp. 7-37). N.Y.: Haworth.
- Melissa, L. & Anna-Beth, D.(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1), 202-234.
- Mikula, G. & Leitner, A.(1998). Partner-related attachment styles and behavioral expectancies about romantic partners, friends, and colleagues. *Zeitschrift fuer Sozialpsychologie*, 29, 85-95.
- Moon, S. B.(2009).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7*. Seoul: Haksisa
- Na, S. Y. & Ahn, M. H.(2011). Parental emotional bond and adult attachment: The mediating role of ego-resilienc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3), 331-355.
- Nurra, C. & Pansu, P.(2009). The impact of significant others' actual appraisals on children's self-perceptions: What about Cooley's assumption for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6(2), 247-262.
- Ok, J.(1998).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Parsons, T. & Bales, R. F.(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Free Press.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Paterson. J., Pryor, J., & Field, J.(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ong, Y. M. & Lee, S. J.(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lations of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adolescent and resilience -centering around the parameters of self esteem, empathy and internal, external locus contro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3), 329-353.
- Sroufe, L. A., Carlson, E., & Shulman, S.(1993).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D. C. Funder, R. Parke, C. Tomlinson-Keesey, & K. Widaman(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p. 315-34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uess, G. J., Grossmann, K. E., & Sroufe, L. A.(1992). Effects of infant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on quality of adaptation in preschool: From dyadic to individual organization of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43-65.
- Thompson, R. A.(1998). Early sociopersonality development. In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311-388). N.Y.: Wiley.
- Thompson, R. A.(2006).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Social understanding, relationships, conscience, self. In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6th ed., pp. 24-98). Hoboken, NJ: Wiley.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concepts, and applications*(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Yoo, S. K. & Shim, H. W.(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 189-206.

□ 접수 일 : 2012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12년 07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9월 13일